

OECD 국가의 복지수준 비교

- 복지정책 방향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항상 충돌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며, 복지수준을 평가하는데에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력정도, 재정건전성, 복지재정지출정도, 복지수요정도, 국민행복정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은 경제적·재정적으로 아직은 활력있고 건전한 국가 상황이나 복지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 평가됨.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확충과 제도개혁의 기회가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임

1. 복지수준 비교분석의 필요성

-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복지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력정도, 재정건전성, 복지재정지출정도, 복지수요정도, 국민행복정도를 함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이들 5개 부문에 대한 개별지표를 선정하여 OECD 30개 국가의 복지수준을 비교분석함

〈표 1〉 총 5개 부문 27개 복지 지표

부문	개별지표
경제활력도	고용률, 실질경제성장률, 생산성증가율, 물가상승률, 1인당 GDP
재정지속도	국가부채비율, 재정적자율,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부담률
복지수요도	노인인구비율, 지니계수, 빈곤율, 실업률, 장애인비율, 산업재해발생률
복지충족도	공적연금 소득보장률, 건강보장률, 고용보장률, 아동 및 보육지원율, 장애급여 보장률, 국가투명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국민행복도	자살률, 출산율, 평균수명, 주관적 행복도, 여가시간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 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 OECD 국가 부문별 복지수준 평가결과

- 경제활력도
 - 경제활력도 부문은 스위스가 0.711점으로 1위, 네덜란드가 0.661점으로 2위, 노르웨이가 0.658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12위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우리나라는 물가상승률(25위)과 고용률(22위)에서는 하위권이나, 생산성증가율(1위)과 실질경제성장률(6위)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순위에 위치함

〈표 2〉 경제활력도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스위스	0.711	11	캐나다	0.584	21	폴란드	0.513
2	네덜란드	0.661	12	한국	0.575	22	스페인	0.511
3	노르웨이	0.658	13	일본	0.565	23	뉴질랜드	0.509
4	룩셈부르크	0.654	14	아이슬란드	0.550	24	체코	0.506
5	슬로바키아	0.625	15	핀란드	0.549	25	벨기에	0.447
6	오스트리아	0.607	16	스웨덴	0.543	26	아일랜드	0.443
7	호주	0.600	17	덴마크	0.538	27	이탈리아	0.406
8	미국	0.593	18	그리스	0.524	28	헝가리	0.402
9	독일	0.590	19	포르투갈	0.518	29	멕시코	0.379
10	영국	0.585	20	프랑스	0.514	30	터키	0.190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재정지속도

- 복지재정의 지속도는 멕시코가 0.845점으로 1위, 터키가 0.802점으로 2위, 호주가 0.791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4위로 높은 순위를 보임
 - 재정지속지표는 역기능 지표로 평가하였으므로 조세 또는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재정 부담 비율이 낮은 국가의 순위가 높게 평가됨. 이에 따라 전통적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주로 중하위권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6위), 재정적자율(6위), 조세부담률(8위), 사회보험부담률(10위)이 상위권에 위치하여 재정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양호함

〈표 3〉 재정지속도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멕시코	0.845	11	미국	0.659	21	네덜란드	0.554
2	터키	0.802	12	캐나다	0.652	22	스웨덴	0.550
3	호주	0.791	13	스페인	0.615	23	그리스	0.524
4	한국	0.775	14	폴란드	0.600	24	오스트리아	0.520
5	뉴질랜드	0.725	15	체코	0.594	25	일본	0.516
6	스위스	0.714	16	영국	0.588	26	헝가리	0.508
7	노르웨이	0.696	17	핀란드	0.578	27	아이슬란드	0.498
8	슬로바키아	0.686	18	독일	0.570	28	벨기에	0.458
9	룩셈부르크	0.680	19	포르투갈	0.567	29	프랑스	0.448
10	아일랜드	0.664	20	덴마크	0.562	30	이탈리아	0.432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복지수요도

- 현재 및 향후 복지 분야 수요정도는 아이슬란드가 0.800점으로 1위, 덴마크가 0.792점으로 2위, 노르웨이가 0.785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17위로 중위권에 위치함

-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3위), 실업률(4위), 장애인 출현율(2위)은 상위권이었으나, 산재발생률(29위), 지니계수(17위), 상대빈곤율(24위) 등 분배관련 지표는 중하위권임
-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장애연금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정책 및 소득양극화 해소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복지수요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표 4〉 복지수요도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아이슬란드	0.800	11	호주	0.651	21	아일랜드	0.553
2	덴마크	0.792	12	핀란드	0.649	22	이탈리아	0.517
3	노르웨이	0.785	13	벨기에	0.638	23	독일	0.514
4	체코	0.770	14	영국	0.630	24	그리스	0.513
5	네덜란드	0.761	15	슬로바키아	0.627	25	폴란드	0.480
6	스위스	0.751	16	뉴질랜드	0.606	26	멕시코	0.473
7	오스트리아	0.746	17	한국	0.593	27	미국	0.460
8	룩셈부르크	0.736	18	헝가리	0.590	28	스페인	0.411
9	스웨덴	0.728	19	캐나다	0.578	29	포르투갈	0.404
10	프랑스	0.659	20	일본	0.558	30	터키	0.253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복지충족도

-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비도는 룩셈부르크가 0.796점으로 1위, 프랑스가 0.761점으로 2위, 스웨덴이 0.741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28위로 최하위권임
- 우리나라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15위)과 보육지원율(15위) 지표에서만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고,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29위), 장애급여 보장률(29위), 건강보험 보장률(27위), 고용보험 보장률(22위), 국가투명도(22위) 등 대부분의 지표는 중하위권임

〈표 5〉 복지충족도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1
1	룩셈부르크	0.796	11	헝가리	0.676	21	스위스	0.537
2	프랑스	0.761	12	이탈리아	0.670	22	아이슬란드	0.516
3	스웨덴	0.741	13	독일	0.664	23	슬로바키아	0.472
4	노르웨이	0.734	14	네덜란드	0.642	24	폴란드	0.464
5	오스트리아	0.717	15	체코	0.593	25	아일랜드	0.455
6	벨기에	0.711	16	그리스	0.580	26	호주	0.444
7	덴마크	0.710	17	일본	0.564	27	미국	0.372
8	스페인	0.706	18	영국	0.562	28	한국	0.363
9	포르투갈	0.703	19	캐나다	0.557	29	터키	0.311
10	핀란드	0.701	20	뉴질랜드	0.538	30	멕시코	0.080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국민행복도

- 국민들의 행복도는 노르웨이가 0.811점으로 1위, 네덜란드가 0.793점으로 2위, 덴마크가 0.780점으로 3위이며, 한국은 29위로 복지충족지표와 더불어 최하위권임
- 우리나라는 자살률, 출산율, 여가시간 지표에서 최하위였으며, 주관적 행복도 25위, 평균수명 19위 등 국민행복지표 전반에서 순위가 낮았음

〈표 6〉 국민행복도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노르웨이	0.811	11	핀란드	0.668	21	오스트리아	0.581
2	네덜란드	0.793	12	벨기에	0.660	22	이탈리아	0.527
3	덴마크	0.780	13	스페인	0.657	23	일본	0.469
4	스웨덴	0.775	14	미국	0.656	24	체코	0.464
5	호주	0.751	15	아일랜드	0.651	25	포르투갈	0.439
6	영국	0.742	16	스위스	0.635	26	터키	0.437
7	뉴질랜드	0.741	17	멕시코	0.618	27	폴란드	0.353
8	프랑스	0.721	18	룩셈부르크	0.605	28	슬로바키아	0.289
9	아이슬란드	0.713	19	그리스	0.598	29	한국	0.190
10	캐나다	0.690	20	독일	0.588	30	헝가리	0.174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종합복지지수

- 5개 부문을 종합한 결과, 노르웨이가 0.734점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룩셈부르크 0.705점, 네덜란드 0.675점, 덴마크 0.674점, 스웨덴 0.668점, 스위스 0.661점의 순임
- 주로 전통적인 유럽 복지강국들의 순위가 높은 반면, 동구권 국가들과 미주, 아시아 국가들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국의 종합점수는 0.499점으로 OECD 회원국 중에 26위임

〈표 7〉 종합복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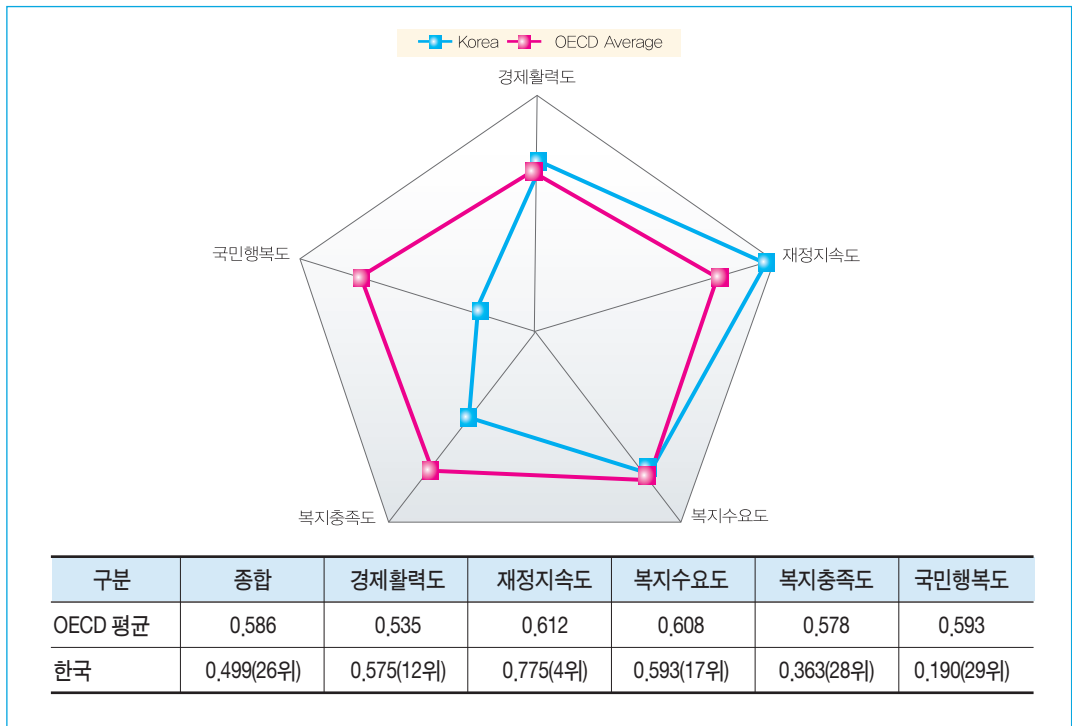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노르웨이	0.734	11	영국	0.613	21	슬로바키아	0.543
2	룩셈부르크	0.705	12	뉴질랜드	0.612	22	아일랜드	0.541
3	네덜란드	0.675	13	캐나다	0.606	23	일본	0.540
4	덴마크	0.674	14	아이슬란드	0.603	24	미국	0.533
5	스웨덴	0.668	15	독일	0.592	25	이탈리아	0.521
6	스위스	0.661	16	벨기에	0.588	26	한국	0.499
7	오스트리아	0.641	17	스페인	0.588	27	헝가리	0.493
8	핀란드	0.633	18	체코	0.588	28	폴란드	0.486
9	호주	0.628	19	그리스	0.598	29	멕시코	0.443
10	프랑스	0.627	20	포르투갈	0.544	30	터키	0.389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3. 한국의 복지수준 평가

- 한국은 OECD 30개 국가 중 26위(종합평균 0.499점)로 하위수준이지만, 국민경제수준이나 복지제도 발전정도를 볼 때 예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부문별로는 경제활력도(12위)와 재정지속도(4위)는 비교적 높은 반면, 복지수요도(17위)는 중위수준, 복지충족도(28위)와 국민행복도(29위) 등은 낮게 나타남
 - 고용률은 낮지만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닌 점, 1인당 GDP 자체가 OECD 국가들 중에는 비교적 하위인 점,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Gini계수 등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는 점의 요인으로 복지충족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의 종합복지지수 순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부문은 국민행복도임
 - 평균수명은 중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행복도가 낮고, 자살률, 여가시간, 출산율 등이 세계 최저수준이기 때문임
 - 다른 부문보다 낮게 평가된 이유는 최근 복지지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복지지출이 확대되었으나 복지체감도가 낮으며, 심한 경쟁 등으로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복지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한국복지는 그러한 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그림 1] 한국의 종합결과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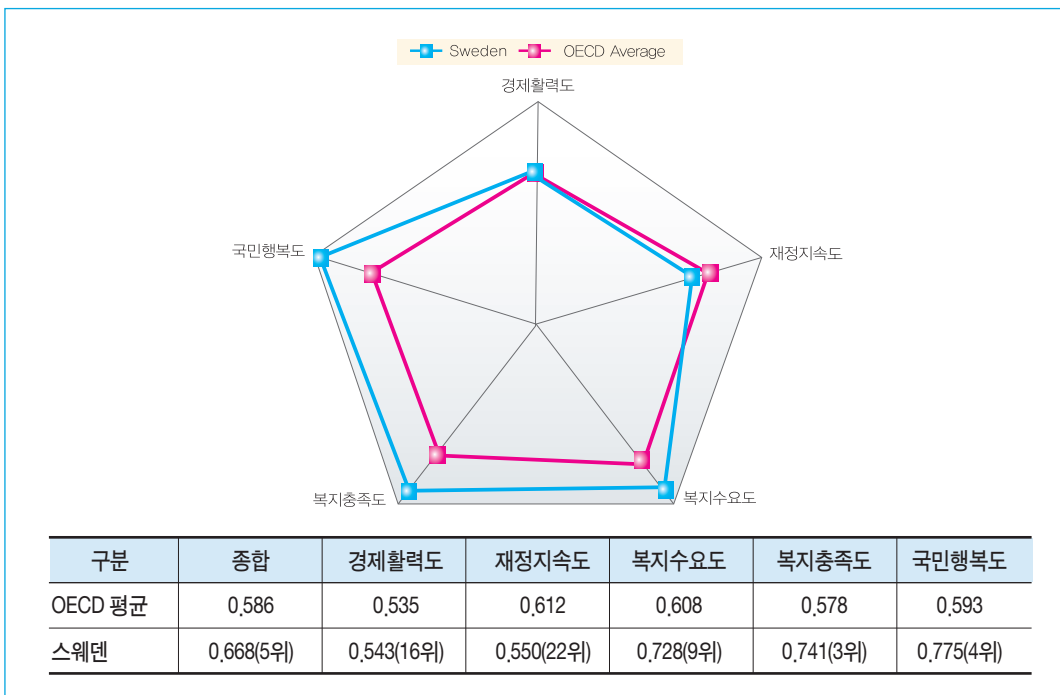
4. 주요국의 복지수준 평가

가. 스웨덴

□ 스웨덴의 최종순위는 5위로, 종합 평균은 0.668점임

-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高)부담-고(高)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적인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만큼, 국민행복도, 복지충족도, 복지수요도는 상위권임
- 국민부담률이 GDP의 47.1%(2009년)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세금 인하를 추진하면서 세금 부담수준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세금부담률이 높아 재정지속도는 하위권에 위치함

[그림 2] 스웨덴의 종합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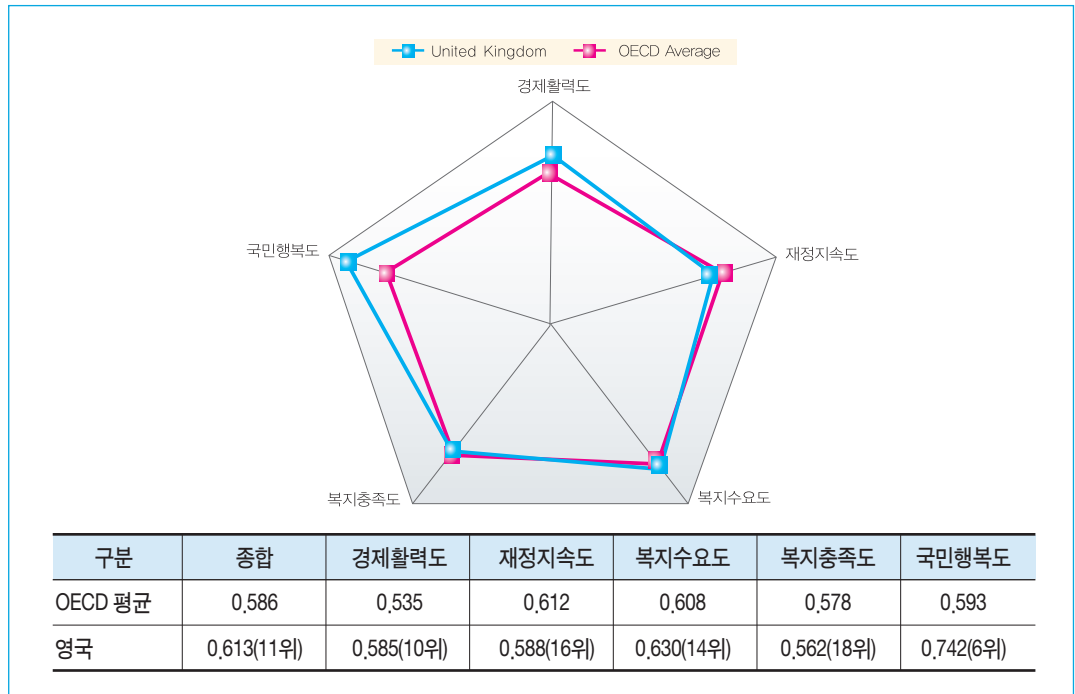
자료: 김용하 외, 「OECD 국가의 복지 지표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나. 영국

□ 영국의 최종순위는 11위로, 종합 평균은 0.613점임

- 재정지속도, 복지수요도, 복지충족도는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국민행복도와 경제활력도는 높아 최근의 재정적자 위기에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복지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은 급증하는 재정적자로 최근 복지개혁안을 발표하여 근로연계형 복지로 근로유인 효과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아동보육 및 노동시장에의 투자를 강조하고 있음
 - 영국의 출산율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그림 3] 영국의 종합결과



5. 시사점

- OECD 국가 중에서 노르웨이 등 북유럽의 국가들이 가장 높은 복지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단순히 복지충족도 측면 즉,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재정적 성과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일본과 미국은 경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 순위는 23위로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고, 헝가리, 폴란드, 멕시코, 터키 등이 한국보다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음
- 2011년 상황에서 한국의 복지 현상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재정적 우위성을 유지한 반면, 국민의 행복도는 낮은 상황으로 복지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인 활력도와 복지재정의 지속 측면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나, 향후 복지수요의 충족 정도와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정도에서는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저출산·고령화 및 국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는 향후 복지수요의 급속한 증가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서, 재정 및 제도간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복지충족도 측면에서 각 개별 지표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중간수준이지만 광범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고, 건강보장은 지출비중은 높지만 보장률은 낮은 상황임
 - 고용보장은 중하위권, 아동 및 보육지원 측면 역시 중위권, 장애급여 보장은 최저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유의하여야 할 점은 각 지표값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의 값들로 구성되어 있어 선진국의 경우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 및 시행으로 다소는 개선된 상황이라는 점임
 - 기초노령연금, 기초장애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2008년에 시행되었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은 통계의 시차성 때문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한국은 경제적·재정적으로 아직은 활력있고 건전한 국가 상황이므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확충과 제도개혁의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임성은(복지서비스연구실 전문연구원)	문의(02-380-8274)
윤강재(보건의료연구실 전문연구원)	문의(02-380-8141)
우선희(기초보장연구실 연구원)	문의(02-380-831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